

유신 이후의 반공영화와 오제도라는 ‘신화’*

- 영화 <특별수사본부>시리즈를 중심으로 -

전지니**

<차례>

1. 실록(實錄)과 비화(秘話) 사이, 사상검사 오제도의 글쓰기
2. 유신 전후 반공물의 성행과 대중문화 속 히어로가 된 오제도
3.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통해 구축된 오제도의 형상
 - 3.1. 남성 스타가 연기한 인간적 영웅
 - 3.2. 육체파 여간첩과 대비되는 탈성화(脫性化)된 남성
 - 3.3. 짧은 몸과 구시대적 정신을 가진 ‘영감’
4. 나가마스크린 속 오제도의 퇴장과 반공표상으로서의 불멸성

<국문초록>

본고는 유신 이후 영화법 개정과 동시에 제작된 영화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후 전향자를 관리하며 간첩 색출에 앞장섰던 사상검사 오제도가 극화되는 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오제도는 한국전쟁 이후 여러 차례 간첩을 검거했던 경험담을 설거했으며, 그의 수기는 1970년대 라디오드라마, 단행본, 영화, 만화 등 전방위로 확산됐다. 그 과정에서 오제도는 대중문화 속 반공 히어로로 재탄생했다.

영화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는 반공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갔던 전직 반공검사와 흥미있는 반공물을 만들고자 했던 제작사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여기서 당대의 미남스타들이 구축한 오제도는 젊고 강직하면서도 청렴하고 관대한, 반공외길을 걸어가는 시대의 영웅이었다. 극 중 오제도는 경우에 따라 액션과 추리를 담당하고, 기꺼이 간첩의 수난사를 들어주는 대화 파트너가 되기도 했다. 또한 ‘실화’를 강조한 영화 속에서, 그는 타락한 위정자들과 달리 여간첩에게 매혹되는 대신 이들을 인간적으로 동정하는 시혜적 입장을 취한다. 이와 함께 오제도가 주축이 되는 영화 <국회 푸락치>에서 그의 대적점에 있는 인물들, 곧 미군 첩보를 외치는 국회의원 및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청년들은 모두 ‘소아적’, ‘유아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여기서 오제도는 사회 원로들을 대신해 이들을 교정하고 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관객이 좋아할만한 액션과 멜로

로 버무렸다 해도, 경직된 남성 히어로가 등장해 유사한 형식의 간첩 소탕담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관객의 눈높이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었다.

살펴본 것처럼 오제도는 ‘반공표상’으로서의 상징성으로 인해 한국 근현대사에서 주기적으로 소환됐다. 그리고 오제도의 수기를 토대로 한 영화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는 70년대 정치논리와 대중문화가 공명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주제어 : 국회푸락치 사건, 김수임 사건, 반공영화, 사상검사 오제도, 섹슈얼리티, 여간첩, 유신체제, 영화법, <특별수사본부> 시리즈

1. 실록(實錄)과 비화(秘話) 사이, 사상검사 오제도의 글쓰기

본고는 유신 이후 영화법 개정과 동시에 기획, 제작된 영화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후 전향자를 관리하며 간첩 색출에 앞장섰던 사상검사 오제도가 극화되는 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평남 출신의 월남 인사로 검사, 정치인으로서 명성을 누렸으며, 사망 후 국가유공자의 자격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오제도(1917~2001)의 일생은 ‘반공(反共)’과 ‘방첩(防諜)’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공이라는 신념을 고수해 온 오제도는 간첩 담론이 주기적으로 활성화될 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그 역시 대중매체를 적재적소에 활용했던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오제도는 신문, 잡지 등에 어느 문인 못지않게 활발하게 글을 기고했으며 여러 차례 수기를 발표하기도 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점은 1970년대 라디오드라마, 영화, 만화 등 대중문화 전 영역에서 오제도를 빈번히 소환했다는 점이며, 이 중에서도 반공영화 속에서 오제도라는 영웅이 구축되는 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오제도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신의주 지방법원에 근무하다 해방 후 ‘붉은 군대’에 대한 거부감으로 민족통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월남을 택하게 된다. 그는 술선해서 북한 인민을 데리고 남하했고, 46년 검사특임고시에 합격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술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3024)

** 항공대학교 교육중점 조교수

회한다.¹⁾ 오제도가 본격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49년 일명 ‘국회 프락치’ 사건을 지휘하면서부터이다. 당시 반민법 제정에 앞장섰고 반민특위 활동을 주도했던 노일환, 이문원 외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김약수 등의 정치인이 남로당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면서 반민특위 조직이 와해됐고, 이때 오제도는 사건을 주도했다.²⁾ 이외에도 그는 북한 공작원 성시백을 비롯해 김삼룡, 이주하 등 남로당 간부를 검거하는 데 앞장서면서 반공투사로 영웅시될 수 있었다.

전쟁 중 부역자 소탕의 전면에 나섰던 오제도는, 공용으로 배급받은 면사를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령이 떨어지자 은닉 생활을 이어가다 검사직에서 파면된다. 변호사 개업을 했던 오제도는, 전후 다시 전향자에 대한 사상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입지를 구축한다.³⁾ 그런 오제도가 검사직으로 복귀한 것은 1957년이였다. 5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지검으로 돌아온 오제도는 타공전의 선봉에 서서 “다시 간첩들이 많이 잡히는 데” 활약했고, 이듬해 1월 평화통일론을 제창했던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정치인을 간첩 혐의로 구속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⁴⁾ 이처럼 무너져가는 자유당 정권의 정당성을 지지했던 오제도는, 4.19 혁명 후 사표를 제출하고 공금횡령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른다. 그는 3.15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혁명과업 수행의 방해자로서 낙인이 찍히게 된다. 하지만 다시 변호사로 복귀해 사회 문화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며 사상검사로 활약했던 과거를 회고한다.

그가 다시 부활한 것은 유신 전후였다. 그런데 이제 오제도를 소환한 곳은 법조계가 아닌 문화계였다. 1970년 창간한 월간 『북한』의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오제도는, 이제 탐정물과 액션물, 그리고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이 중첩된 반공텍스트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된다. 1970년부터 방송을 시작한 동아방송의 라디오드라마 <특별수사본부>의 주요 에피소드는 총 21권의 단행본으로 발표됐고, 같은 시기 영화와 만화로 만들어졌다. 그 개작 작업의 중심에는 극작가 오재호가 있었으며, 그는 이야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특별수사본부, 그 중에서도 오제도의 증언을 중요하게 참고했다. 오재호는 라디오드라마의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동료들의 안전 때문에 입을 열기 꺼리는 오제도를 여러 번 설득해 취재에 성공했다고 언급했으며, 오제도는 오재호의 취재의욕과 구성력 등을 높이 사 어렵게 취재에 응했다고 밝혔다. 오제도가 <특별수사본부> 연작의 서문을 쓴 배경 역시 여기에 있었다.⁵⁾

그간 해방~전쟁기 오제도의 위상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의 연구 성과에 주목할 수 있다. 강성현은 해방기 사상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하며 국가보안법 성립 이후 검찰의 재조직화 과정에서 오제도가 맡았던 역할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오제도, 선우종원 등이 선거관리 및 선거사범 처리에 동원됐고, 이들은 사상범죄

5) 두 사람은 단행본 『특별수사본부』(오재호, 『특별수사본부』 5 : 기생간첩 김소산, 창원사, 1972)의 서문과 후기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이 搜查實錄의 著者인 吳在昊 씨의 왕성한 취재 의욕과 치밀한 構力,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현실에 충실하려는 자세를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뛰어난 능력의 所産이라 할 이 글이야말로 투철한 問題意識과 귀한 휴머니즘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결정적인 共感을 얻을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오제도, 서문, 중)

그러나 막상 取材에 나서고 보니 앞이 막혀버렸다. 당시 金小山 事件을 담당했던 吳制道 檢事(現辯護士)를 찾아갔더니 『난 말 못합니다. 일련의 對共사찰에 관한 일들은 비록 긴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지금 곳곳에 살아 있는 동료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새벽같이 오 변호사의 집을 찾아가 농성도 해보았고, 子正 가까운 시간에 골목을 지키기도 여러 차례 했으나 헛수고였다. 당시 市警分室 崔조주임이었던 김임전 씨의 다음과 같은 원호사격이 없었더라면 이미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오재호, 후기, 396면)

1) 오제도 『나의 인생경력 : 아직도 뛰고 있는 오제도 검사』, 『한국논단』, 22권 1호, 1999.

2) 오제도, 『남로 국회 프락치 사건 논고 요지』 (1)~(2), 『부인신문』, 1950.2.14~15.

3) 전후 오제도의 사상 논쟁에 대해서는 전지니,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청년 표상 연구, 『어문론총』, 제6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390~393면을 참조.

4) 화제의 인물 일본 면담 오제도 씨 간첩 수사, 『동아일보』, 1957.11.23.

처리의 실무방침을 세워나갔다.⁶⁾ 이행선의 경우 한국전쟁기 수기들을 논하는 과정에서, 오제도가 편집자로서 관여했던 수기집 『적화삼삭구인집』(1951)을 반공 프로파간다로 간주하며, 전쟁기 오제도의 수기가 과거의 활약상을 소환해 자신을 ‘기념화’하는 작업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⁷⁾

그 외 1950~60년대 반공영화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이 중 정영권은 가변적으로 소급 적용되는 ‘장르’적 관점에서 반공영화에 접근하며, 196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반공영화 담론 및 장르가 형성되고, 이후 반공영화가 제도적 장르로서 실체화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했다.⁸⁾ 이와 함께 70년대 반공영화로서 <특별수사본부> 시리즈와 관련한 다음의 논의가 발표됐다. 이인규는 1970년대 반공영화를 온전히 선전적인 반공영화와 정부 영향력 바깥에서 소비된 반공영화로 구분하고, <국회 푸락치>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멜로적 반공영화’로 분류한다.⁹⁾ 전지니는 시리즈 속에서 반공이라는 구호와 여간첩의 섹슈얼리티가 맞물리며 형성되는 불협화음과 실화를 내세운 영화 홍보방식, 그리고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와의 공통분모에 대해 논의한다.¹⁰⁾ 그 외 이하나는 1970년대 유행한 간첩/첩보 서사로 연구 범위를 넓혀 당대를 ‘논픽션 시대’라 명명하고, <특별수사본부>를 비롯한 간첩 이야기의 다수가 “실화 이거나 실화처럼 보이도록 홍보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¹¹⁾

본고의 경우 반공영화 장르의 형성 및 영화 <특별수사본부>와 관련한 기존 연구 성과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제도라는 실존 인물을 통해 영화의 제작과 홍보 과정 및 텍스트의 의미를 재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관련하여 이하나는 실화를 소재로 한 간첩/첩보 서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60년대 후반으로 간주하지만, 극(劇)을 통한 실화와 반공담의 만남은 이미 KBS 드라마 ‘실화극장’이 인기를 끌었던 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여간첩 이야기가 눈에 띄게 늘면서 관심을 받게 된 중심에 <특별수사본부> 시리즈가 있었다.”¹²⁾라고 설명하지만, 실화를 강조한 여간첩 이야기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대중잡지에서 끊임없이 소비되었다. 곧 70년대 <특별수사본부> 시리즈와 이전의 반공 실록극과의 차이점은 오제도라는 실존인물의 적극적 개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오제도가 글쓰기에 매우 익숙한 법조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일간지, 대중잡지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간첩을 검거했던 경험담과 간첩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 실과했다. 이 과정에서 해방기 오제도의 경험담은 한국전쟁 기간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매체에 발표됐다. 그리고 ‘수기’를 표방한 오제도의 글쓰기는 그가 같은 사상검사 출신인 선우종원, 정희택 등보다 대중과 친숙해지는 데 기여했다.

그의 글쓰기 작업은 단독정부 수립 이후부터 이어진다. 먼저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 실무제요』를 발표하여 ‘우리 민족의 붕괴 멸망을 바라 마지않는 국외의 어떤 세력’ 곧 좌익분자를 소탕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당시 국가보안법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구체적 처리 기준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국가보안법의 입법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 강성현, 「1945~50년 ‘檢察司法’의 재건과 ‘사상검찰’의 ‘反共司法」, 『기억과 전망』 제25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1, 120~124면.

7) 이행선, 「한국전쟁, 전쟁 수기와 전시의 정치」, 『상허학보』 제46집, 상허학회, 2016, 131~132면, 139면.

8) 정영권, 『적대와 동원의 문화정치: 한국 반공영화의 제도화 1949~1968』, 소명출판, 2015, 11~17면.

9) 이인규, 「1970년대 반공영화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65~168면.

10) 전지니, 「반공과 검열, 그리고 불온한 육체의 기묘한 동거」, 『여성문학연구』 제33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164~181면.

11) 이하나, 「1970년대 간첩/첩보 서사와 과잉 냉전의 감수성」, 『역사비평』 제112권, 역사문제연구소, 2015, 377~378면.

12) 위의 글, 381~382면.

다시 強調하면 우리 大韓民國은 倭帝下の 朝鮮에서 完全히 脫하고 完全히 光復된 우리 倍達民族의 獨立國家라는데 깊이 銘心하고 倭國 植民地補強을 爲함이 絶對아니고 우리 「大韓民國」을 保安하기 위해 制定된 特別刑法이다. 따라서 國家保安法에 抵觸하는 行爲를 敢行하는 者는 我國家에 反逆, 도는 賣國徒輩 以外에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여직것 大韓民國을 單政 云云의 不穩危險思想을 一掃하지 못하고 以北 傀儡集團과 同等視하며 그 위에 美蘇兩軍政時 使用하던 超然한 南北統一이라는 美名下에 國憲을 否定하고 어떤 反國家主義運動을 展開한은 愛國志士라고는 到底히 肯定할 수 없고 當然히 本法의 團束對象으로 하며 民族正義를 살려 嚴重處斷하여야 됨을 再言 不要일 것이다.¹³⁾

여기서 ‘남북통일’이라는 미명하에 반국가주의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은 국회 프락치 사건을 통해 간첩으로 몰렸던 한국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겨냥하고 있고, 그는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내세워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는 이들을 ‘사상범’으로 규정했다. 그는 사상범에 대한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전향, 교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오제도는 문인들과 함께 『적화삼삭구인집』(1951)을 발표했고, ‘일민주의 문학의 첫거름’이라는 부제를 붙인 글에서 ‘민족문학’을 부정하는 저들의 문학은 “스탈린, 김일성을 우상화시켜 그들의 노예착취 등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저급한 야만적, 마취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정리한다.¹⁴⁾ 그는 전쟁 중 『붉은 군상』(1951), 『자유를 위하여』(공저, 1951), 『공산주의 ABC』(1952), 『평화의 적은 누구냐』(1952) 같은 책들을 연이어 발간했으며, 이 중 『공산주의 ABC』와 『평화의 적은 누구냐』는 은신 도중 발행됐다.

13) 오제도, 『국가보안법실무제요』, 서울지방검찰청, 1949, 31~32면.

14) 오제도, 『민족양심의 반영』, 『적화삼삭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 137면.

염두에 둘 점은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오제도 자신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정, 발행되었고, 여기 실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여러 매체에 다시 기고하는 과정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실례로 전후 발표된 『사상검사의 수기』(1957)는 『붉은 군상』 제2집에 해당하는 『평화의 적은 누구냐』의 개정 증보판으로¹⁵⁾, 발표 당시 자신이 지휘했던 간첩 김정제 사건 및 국제법률가대회인상기를 추가시킨 것을 제외하면 전체 내용이 동일하다. 또한 1969년 ‘반공지식총서’로 묶인 『추격자의 증언』¹⁶⁾에는 ‘국회 프락치 사건의 편모’, ‘성시백의 무명당 투쟁’ 등 『붉은 군상』에 실린 에피소드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희망출판사에서 발행한 『해방 20년사』에는 김수임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간첩 성시백 사건 등 전쟁 중 오제도가 발표했던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¹⁷⁾ 그는 일간지에 「그때 그 일들」¹⁸⁾ 등의 회고록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개정, 발췌, 재발표 등의 과정은 1990년대까지 진행됐다.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를 수차례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제도의 글은 ‘실화’처럼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최근까지 반복되고 있는 김수임 서사의 원형이 된 것은 『평화의 적은 누구냐』(1952)에 실린 오제도의 수기였다. 그는 이 글에서 ‘국제여간첩 김수임’ 사건의 핵심 키워드를 ‘애정유죄(愛情有罪)’로 두었으며, 불우한 환경을 딛고 명석한 머리와 뛰어난 외모로 주목을 받았으나 남로

15) 오제도, 『사상검사의 수기』, 창신문화사, 1957, 머리말 중.

16) 책의 표지에는 ‘해방 이후 민주당 정권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공산도배가 저지른 헤아릴 수 없는 대사건을 직접 담당 취급한 사상검사의 수기’라고 적혀 있다.

17) 이병도, 『해방 20년사: 신문기록에 의한 대사건의 집대성!』, 희망출판사, 1965. 이 책에 있는 ‘국회 프락치 사건’, ‘여간첩 김수임’, ‘김수임 이주하의 지하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희망출판사에서 1955년 발간한 『해방 10년』에 정부수립기의 주요 사건으로 실렸다. 『해방 10년』에 실린 세 글 역시 ‘오제도’라는 주어는 빠져 있지만 일전에 발표한 그의 수기 속 에피소드와 거의 일치한다. (『희망 별책 해방 10년』, 희망사, 1955.8, 112~117면) 『해방 10년』의 간첩 에피소드는 『해방 20년사』에도 그대로 실리는데, 후자의 경우 오제도가 전면화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18) 오제도, 「그때 그 일들」, 『동아일보』 135~156회, 1976.6.12~1976.7.7; 오제도, 「전환기의 내막-국회 프락치 사건」, 『조선일보』, 1~7회, 1981.6.9~1981.6.16.

당원 이강국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미국인 남편을 배신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가련한 김수임의 이야기는 이후 발표된 김수임 서사의 근간이 됐다.¹⁹⁾ 또한 광주리장사로 가장한 여간첩의 국부에 숨겨진 박헌영의 지령을 발견하고, 이 문서를 통해 국회에서 활동 중인 남로당 프락치들을 일망타진한 이야기는 반복되는 오제도의 회고를 통해 마치 진실처럼 간주됐다. 살펴본 것처럼 오제도는 이미 수기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재호가 『특별수사본부』 후기에 쓴, 오제도는 “살아있는 동료들의 생명과 관계된 이야기이기에 입을 열기를 주저했다.”²⁰⁾는 회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실증성을 강조한 오제도의 수기는 다분히 ‘문학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¹⁾ 오제도가 쓴 수기에는 간첩의 탄생부터 종말까지, 혹은 수사의 시작부터 끝이라는 명백한 서사가 존재하며, 남로당 아지트나 이들의 범죄 행각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담겨 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 간의 생동감 있는 대화가 삽입되기도 한다. 이 중 국회 프락치 사건이나 성시백 검거 사건 등에 대한 회고글은 마치 첩보물을 연상시키며, 김수임 사건의 경우 이에 더해 멜로드라마처럼 두 남자를 함께 사랑한 여자의 심리를 조명하고 있다. 정리하면 오제도의 수기는 탐정소설이나 연애소설처럼 대중의 흥미를 끌어당길 만한 ‘독물(讀物)’이었다.²²⁾ 동일한

내용이 시대를 초월해 재생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침을 획책 중인 북한 괴뢰의 도발’²³⁾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동시에, 그의 글이 독자의 시선을 잡아둘 만한 흥밋거리이기에 가능했다. 여간첩의 국부에서 찾은 남로당 지령의 암호를 해독한다는 설정은 스파이물에 등장할 법한 자극적인 소재였던 것이다.

오제도는 대중문화와 친연성이 있는 법조인으로, 일찍이 대중문화의 선전효과에 주목했으며 적성영화와 불온서적의 범람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적성영화 시비 논란과 관련해 “공산주의자는 영화를 최대한 ‘선전’에 이용한다며, 대중이 세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50년대 후반 아시아영화제 출품작을 선정하는 정부추천심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오제도가 1970년대 대중문화 텍스트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이 같은 다양한 글쓰기 이력 및 대중문화와의 친숙함이 작용했음을 감안해야 한다.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설명할 때 오제도의 글쓰기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뿐 아니라 영화의 전개가 전적으로 그의 수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영화 <국회 프락치>는 『붉은 군상』, 『추격자의 증언』에 반복해서 실려 있는 「국회 프락치 사건의 편모」의 내용을 그대로 스크린에 옮겨 왔다. 이 수기는 남로당의 인기 유도책에 넘어간 국회의원 노일환이 소장파 의원들과 연합해 국회에 외군철폐안을 상정하고, 미 군사고문단 설치 반대의 서한을 유엔 한위에 전달하게 된 경위를 서술하고 있다.²⁴⁾ 그리고 제작진은 사건의 전개 및 인물의 형상화 등 모든 면에서 다분히 ‘문학적’인 오제도의 회고록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렇다면 오제도가 대중문화의 히어로로 배치된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19) 모윤숙이 김수임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 직전 “악마와 같은 한 개 사나이에겐 갖 발핀 가련한 일 여성을 위하여 같은 여성으로서 또한 동창생으로서 그 신변에 대한 일단을 말하여 관대한 처분이 있기를 바란다.”며 김수임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등 해방기 김수임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실렸으나, 김수임 처형 후 곧바로 6.25가 발발하면서 보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곧 김수임의 일대기를 엮음으로써 이후 여러 차례 반복, 재생산됐던 김수임 서사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오제도였다. (모윤숙, 「나는 인간 김수임을 안다」, 『연합신문』, 1950.6.17)

20) 오재호, 위의 글, 396면.

21) 김수임 사건과 관련하여 오제도의 수기에 기초장에도 없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다. (『한국판 마타하리, 신화인가 진실인가 - 김수임』, 『인물현대사』, KBS, 2005년 2월 11일 방영)

22) 『평화의 적은 누구냐』의 첫 번째 에피소드 역시, 독자가 가장 흥미를 가질 만한 김수임 사건이었다.

23) 오제도(1957), 앞의 글, 머리말 중.

24) 오제도, 「국회 프락치사건의 편모」, 『추격자의 증언』, 1969, 114~129면.

2. 유신 전후 반공물의 성행과 대중문화 속 히어로가 된 오제도

오제도는 부정선거 논란에 기여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잠시 목소리를 낮추다 6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과거의 간첩 소탕기를 개정하여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오제도의 글이 주기적으로 소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 주기적으로 활성화되는 간첩 담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월남한 오제도가 사상검사로써 두각을 나타낸 시점 및 전후 검사로 복귀한 시점에는 각각 국회프락치 사건과 진보당 간첩 사건이, 60년대 후반 이후 다시 반공 교육 주체로서 대중문화 전반에 등장한 배경에는 유신 전후 반공, 방첩 담론의 활성화가 놓여 있었다. 반공주의는 통치체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적을 필요로 했고, 오제도는 여러 편의 기고를 통해 내 옆의 누군가가 간첩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간첩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었던 실존 인물 오제도는 그렇게 빈번히 여러 영역에서 호출됐다.

오제도와 이승만의 친연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전쟁 중 발표한 수기 「자유를 위하여」에서 이승만을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로 칭하며 “이승만 대통령께옵서 창도하시는 그리고 건국이념인 일민주의야 말로 자유의 구현임을 깨달아야 한다.”²⁵⁾고 역설했다. 반면 5.16 이후 수감된 이력이 있는 그는, 박정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오제도는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대신 오제도는 70년대 대중문화 전반에 적극적으로 호출되기에 이른다. 10월 유신 선포를 전후로 방첩(防諜)의 필요성에 입각해 간첩 담론이 활성화됐다. 박정희는 ‘총력안보’를 내세우며 반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고 역설했으며, 문화예술계 역시 유신 정신에 입각해 ‘문화 유신’을 제창했다. 그 가운데 영화계에서도 ‘국민 사기의 양양’과 ‘국민정서의 순화’라는 사명을 띠고 새마을 운동과 반공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늘어났으며²⁷⁾ 시나리오 심의 및 영화검열 기능이 강화되면서 ‘사회의 불건정성’ 등 일체의 불안요소가 배격되기에 이른다.²⁸⁾ 반공을 표방한 영화는 이 같은 분위기하에서 활성화될 수 있었다. 1970년대 검열 현황자료 분류에 따르면 당시 영화는 소재에 따라 멜로, 액션, 소년, 코미디, 미스터리, 시대 등으로 구분되는데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는 모두 ‘반공’으로 적시됐다.²⁹⁾

평론가 김종원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반공 극영화는 해방기 제작된 <성벽을 뚫고>(1949, 한형모 연출)이며, 그는 반공 극영화를 ‘전쟁을 배경으로 한 군사액션물’, ‘멜로드라마의 형식을 빌린 승공양양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휴머니티를 부각시킨 작품’, ‘분단의 비극이 주제가 된 사회드라마’로 분류하고 있다.³⁰⁾ 이 중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는 멜로성향의 반공영화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 60년대부터 유행하던 스파이 영화의 수사 형식과 활극적 요소가 추가되고 ‘실록’으로서의 특징을 강조한 한시적 반공영화였다.

‘실화’를 표방한 반공물이 본격적으로 제작된 것은 1960년대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1965) 등이 큰 인기를 끌었고, 반공을 내세운 영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서 이야기의 실증성을 내세우는 분위기가 구축됐다. 1964년부터 대략 10년 동안 방영된 ‘실화극장’은 반공사상을 고취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단막극으로 출발했으며 이후 연속극 형태로 변모한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다

25) 오제도 편,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서울문예서림, 1951.

26) 장준하의 아들 장호권은, 오제도가 장준하에게 “박정희는 국가를 배신했고, 민족을 배신했고, 자기 동료까지 배신했다. 이런 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고성국의 정치in (51) “박근혜, 용서는 하겠다. 그러나 잊지는 말자”』, 『프레시안』, 2010.10.2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057, 검색일 2017.3.27.)

27) 「문화유신」을 다짐」, 『코리아시네마』, 1972.12, 56~57면.

28)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영화시책」, 『근대영화』, 1972.1, 15면.

29) 『한국영화 외국영화 검열현황편람 1971년~1981년』, 영화진흥공사, 1982. 이인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반공’으로 분류된 영화는 총 72편이며, 70년대 초반 반공영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모호했다. (이인규, 앞의 논문, 154~156면)

30) 김종원, 반공영화 30년의 현주소, 『북한』 제48호, 북한연구소, 1975, 252면.

문 이 프로그램에 신영균, 문희 등 스크린 스타들이 출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됐으며,³¹⁾ 이외에도 김강윤 같은 시나리오 작가들이 대본 작업에 참여했다.³²⁾ ‘실화극장’의 주요 에피소드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8240 K.L.O>(1966, 제일영화사), <돌무지>(1967, 대양영화사), <방콕의 하리마오>(1967, 연합영화사) 등이 관객과 만났다. 그리고 ‘실화극장’의 인기와 반공담론의 활성화에 따라 동아방송은 보다 강화된 ‘수사실록’을 내세우며 1970년부터 라디오드라마 <특별수사본부>를 방영하기에 이른다.³³⁾

‘실화극장’이 반공을 표어로 내세우며 한국전쟁 중 국군의 활약이나 이국(홍콩, 방콕 등)을 배경으로 한 간첩 궤멸 등 비교적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다면³⁴⁾ 오재호가 대본을 맡았던 동아방송의 심야 드라마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는 오제도를 내세워 해방기의 간첩 소탕담에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의 연출자 이병주는 라디오드라마 제작 당시 오재호가 대본을 쓴 뒤 오제도 검사에게 내용을 검증받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³⁵⁾ 그리고 ‘실화극장’이 ‘세미 다큐멘터리’로 선회했을 때 영화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는 ‘실록 다큐멘터리’를 홍보문구 전면에서 내세웠다. 관련하여 오제도는 동아방송 <0시에 만난 사람>에 출연해 국회 프락치 사건을 직접 들려주기도 했고³⁶⁾, 그의 존재 자체가 시리즈의 실증성과 진정성을 증명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역사의 증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는 여타 실화 소재 텍스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실록을 표방했고, 반공과 실록을 내세워 심야에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청취자의 귀를 사로잡았다.

라디오드라마는 동아방송이 통폐합될 때까지 10년이 넘게 이어졌으며, 대본을 바탕으로 한 단행본 또한 계속 재발행됐음을 감안하면 시리즈의 인기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⁷⁾ 다만 라디오드라마와 단행본은 특별수사본부의 액션과 여간첩의 섹슈얼리티를 시각화할 수 없다는 장르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비슷한 시기 발표된 영화와 만화는 상상 속의 여간첩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오제도의 형상도 시각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다.

< 표 1 > 오제도가 등장하는 1970년대 반공물

작품명	장르	작가
<특별수사본부> 시리즈(1970~1980) ³⁸⁾	라디오 드라마	오재호
실화극장 <19호 검사실>(1974)	TV드라마	오재호
<특별수사본부> 시리즈(1972) 전체	단행본	오재호
<특별수사본부> 시리즈 중 <기생 김소산>(1973, 연출 설태호) <김수임의 일생>(1974, 연출 이원세) <국회 프락치>(1974, 연출 권영순) ³⁹⁾	영화	원작 오재호, 각본 신봉승 외 원작 오재호, 각본 오재호 원작 오재호, 각본 권영순 외
『기생간첩 김소산』(발행 연도 미확인) ⁴⁰⁾	만화	박수산
『19호 검사실』(발행 연도 미확인)	만화	박수산

31) 『각광받는 인기스타들』, 『근대영화』, 1972.3, 18~19면.

32) ‘실화극장’을 이끌었던 인물은 ‘반공작가’ 김동현이었으며(인기 장수 프로 순례(6) 실화극장 KBS 1TV), 『동아일보』, 1970.9.5), 그는 만화영화 <똥이장군>(1979)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다. 또한 <특별수사본부>의 작가 오재호는 ‘실화극장’ 종영 이후 방영된 <19호 검사실>의 대본을 맡기도 했다.

33) 이 하나는 1970년대를 ‘논픽션의 시대’라고 명명한다. 이 의견에 동의하지만 반공영화의 실화물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나, 앞의 논문, 376면)

34) 그 과정에서 ‘실화극장’은 <귀로>(1971~72)라는 제목으로 김수임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다. 극본은 서윤성, 연출은 김연진이 맡았으며, 총 18회에 걸쳐 방영됐다. <귀로> 방영 전 “<귀로>는 지금까지 실화극장의 미스터리 수법을 지양하고 세미도큐멘터리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KBS 새 연속극 귀로』, 『동아일보』, 1971.10.18)

35) 김정기, 『국회 프락치 사건의 재발견-그레고리 헨더슨의 한국 정치 담론』 2, 한울, 2008, 222면.

36) 『국회 프락치 사건, ‘흥미거리’ 혹은 ‘조작의 원조’』, 『민족 21』, 2012.7, 121면.

37) 평택에 거주하던 반공포로 2세는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들으며 ‘반공 애국심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한다. (김대성, 반공포로 가족사 일기-간첩 수사극 애청 추억’, 『Economytalk』, 2015.1.9.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27474>, 검색일 2017년 3월 23일.)

38) 라디오드라마의 경우 구체적인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작품이 많아 오제도가 등장하는 에피소드를 열거하기 어렵다.

39) <배태옥 사건>의 경우 오리지널 시나리오에 잠시 등장했던 오제도가 영화에는 등



< 사진 1 > 사상검사로 활약했을 당시의 젊은 오제도



< 사진 2 > 박수산의 만화 『기생간첩 김소산』(1979)에서 형상화된 오제도

이처럼 1970년대 오제도의 수기는 라디오드라마, 단행본, 영화, 만화 등 전방위로 확산됐고, 오제도는 대중문화 속 반공 히어로로 재탄생했다. ‘북괴가 단정 후부터 공산주의 통일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모략을 벌이고 있다.’는 인식은 오제도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배경이 될 수 있었다.⁴¹⁾

장하지 않았으며, <외팔이 김중원>에서는 간첩 간의 대화 중 언급만 된다.

40) 1979년 판본은 재판본으로, 초판은 70년대 중반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41) 관련하여 오제도는 “간첩은 끊임없이 남하할 것이며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도 달라질 것이 확실시되는 바 우리는 제작금 주의해야 할 것이다.”고 역설한 바 있다. (오제도, 『공산간첩을 섬멸하자-인공위성보다 무서운 인식 부족』, 『국회보』, 국회사무처, 1957.11, 133면)

영화 제작자의 입장에서 오제도의 활약상을 극화하는 작업은 반공이라는 국시에 호응해 우수영화로 선정되는 동시에 추리, 액션, 멜로가 혼합된 영화를 만들어 관객에게 호소하는 방안이기도 했다. 영화 <특별수사본부>의 제작사는 한진흥업으로, 사장 한갑진은 이 시리즈로 말미암아 ‘반공영화 메이커’⁴²⁾로 명명됐다. 그는 과거 “영화 자체 내에 계몽적이거나 반공적인 데가 있으면 그것으로 자연히 국민을 계몽하게 되는 것이 흥미 없는 영화를 만들면 관객만 줄어든다.”⁴³⁾고 역설한 바 있으며, 자신의 제작사를 차린 후 새 영화법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는 각 영화사는 매년 6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할 의무가 있고 연초 지난해 제작한 영화 중 우수영화를 선정해 외화 쿠틀 1편씩을 할당한다는 내용의 ‘새 영화법’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⁴⁴⁾ 곧 검열 강화와 관련하여 우수영화의 제작 방침이 마련되고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한갑진은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동시에 재미를 추구하는 반공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한다. 영화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는 반공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 갔던 반공검사와 ‘흥미있는’ 반공물을 만들고자 했던 제작사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영화 <특별수사본부>는 <특별수사본부 기생 김소산>(1973), <특별수사본부 여대생 이난희>(1973), <특별수사본부 배태옥 사건>(1974), <특별수사본부 김수임의 일생>(1974), <국회 푸락치>(1974), <특별수사본부 외팔이 김중원>(1975), <구삼육 사건>(1976) 등 총 7편이 만들어졌다.⁴⁵⁾ 이

42) 『국제영화』, 1975.1, 46면.

43) 한갑진, 『영화법과 영화제도』, 『영화TV예술』, 1968.7, 89면.

44) 한갑진, 『우리 어머니처럼 살면 무엇이 두려우랴』, 동아일보사, 1998, 223면. 다만 한갑진은 이 수기에서 “새 영화법이 내게 유리한 조건들이었다.”(223면), “제작사의 입장에서 연간 6편의 국산 영화를 의무적으로 제작한다는 규정은 부담스러웠고, 정부가 정한 제작상의 윤리 규정이라는 것도 몹시 까다로웠다.”(258면)면서 새 영화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기도 한다.

45) 영화의 상세 크레디트는 전지니(2014), 위의 논문, 153면을 참조. 이 중 <국회 푸락치>와 <구삼육 사건>은 개봉 당시 <특별수사본부>라는 수식어가 생략됐고, 특히

중 오제도가 실명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기생 김소산>, <김수임의 일생>, <국회 푸락치> 등 세 편이며,⁴⁶⁾ 정확한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는 <김수임의 일생>, <국회 푸락치>이다. 두 편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편은 공판기록이나 언론보도를 찾을 수 없다. <기생 김소산>은 “국일관에서 미인계로 명예를 떨치며 암약한 기생 간첩”이라는 언급을⁴⁷⁾, 배태옥에 대해서는 실존 인물이 영화를 관람했다는 짝맞은 기사⁴⁸⁾만을 확인할 수 있다. 박헌영의 아들로 알려진 원경스님에 따르면 자신의 고종사촌 누이였던 김소산(본명 김정진)은 ‘오제도 검사 암살 음모’ 사건에 휘말려 투옥 당했으나⁴⁹⁾, 김소산의 이야기는 자신의 영웅담을 과시했던 오제도의 수기 속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는 영화 시작 전 이 모든 이야기가 ‘실화’임을 강조했고, 당대 신문 자료를 삽입하여 이야기에 실증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영화 <기생 김소산>의 도입부를 보면, 삽입된 신문 이미지는 ‘김소산’에 관한 것이 아닌 해방 이후 급변하는 정치 사회적 혼란을 담은 것이다. 곧 이상 일곱 편의 에피소드는 5.10 총선거나 여순사건, 국가보안법 제정 같은 주요 사건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을 등장시키지만, 이 중 비교적 실체가 분명한 사건은 <김수임의 일생>과 <국회 푸락치>에 불과했다. 그

<구삼육 사건>의 경우 제작사가 ‘우성사’로 바뀌었지만 모두 오제호의 원작을 토대로 하거나 그가 직접 극본을 쓴 동일한 시리즈의 일환이다.

46) <특별수사본부 김수임의 일생>의 경우 영상자료원 VOD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수사본부 기생 김소산>과 <국회 푸락치>는 영상자료원에 각각 DVD, 필름 형태로 소장되어 있다.

47) 국민방첩연구소, 『지공교육독본-이것이 북한의 전부다』, 흑백문화사, 1972, 739면.

48) 『새 영화 해방직후의 간첩스토리 배태옥 사건』, 『경향신문』, 1973.12.11; 한진홍업 제3 작품 배태옥 사건, 완성, 『매일경제』, 1973.12.3.

49) 원경스님은 김소산(본명 김정진)은 박헌영의 조카로 사회주의 소신이 있었던 인물이라 언급한 바 있다. (백일현, 외국어 뛰어난 ‘이화’ 출신 ... 사회주의 소신, 간첩활동은 ‘글쎄’, 『중앙일보』 2015.4.11. <http://news.joins.com/article/17564818>, 검색일 2017.3.27; 한승동, 『눈물 젖은 두만강』에서 부르는 ‘남’이 박헌영 선생, 『한겨레』, 2015.12.9.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721163.html#csidx2bf9b0c8c0df6f98ee03a79d2d13efb>, 검색일 2017.3.29.)

리고 이 또한 전적으로 오제도의 기억과 증언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화’로서의 가치는 무색해진다. 해방 이후 김수임을 비롯한 남로당 간첩에 쏟아진 언론의 관심, 그리고 전후 대중잡지를 통해 만들어진 공산군 스파이에 대한 호기심은 ‘비화(秘話)’로서 <특별수사본부> 시리즈에 이르러 만개할 수 있었다.⁵⁰⁾

영화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는 반공영화와 전쟁영화를 우대하는 우수영화 선정정책과 관련하여 반공주의와 실증성을 표방함으로써 연속적으로 제작, 개봉될 수 있었다. 그리고 <김수임의 일생>, <국회 푸락치>, <외팔이 김종원> 등 총 3편이 문공부에서 선정한 우수영화로 지정됐다. 6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기생 김소산> 이후 시리즈를 거듭하며 관객수는 급감했지만⁵¹⁾, 영화가 계속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화 쿠퍼터라는 확실한 보상책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하여 흥행 실적과 상관없이 영화는 이어질 수 있었으며, ‘70년대식’ 반공영웅 오제도의 형상이 스크린에 주도했다.

3.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통해 구축된 오제도의 형상

3.1. 남성 스타가 연기한 인간적 영웅

오제도가 처음 영화에 등장한 것은 이강천 감독의 <나는 속았

50) 당시 실화의 영화화의 중심에는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아빠하고 나하고>, <눈으로 묻고 얼굴로 대답하고 마음 속 가득히 사랑은 영원히> 같은 멜로드라마가 자리 잡고 있었다. (『74년의 한국영화 결산과 과제-문예물 제작으로 탈분황 조직』, 『영화』, 1974.2, 14면.)

51) 시리즈 중 최고의 흥행작 <기생 김소산>이 64,456명을, 가장 부진한 흥행실적을 올린 <국회 푸락치>가 5,350명을 동원했다.

다>(1964)였다. 김수임 사건을 토대로 한 이 영화에는 문정숙, 신영균 같은 스타들이 등장했으며, 신영균은 김수임의 연인 이강국을 연기했다. 주목할 점은 극 중 오제도의 비중이 거의 없다는 점으로, 오리지널 시나리오에 등장하지 않았던 오제도는 심의 대본에서 남로당 간첩 소탕 계획을 세우는 와중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처럼 김수임의 일대기에서 주변으로 물러나있었던 오제도는, 자신의 증언에 의존해 만들어진 <특별수사본부> 시리즈에 이르면 주인공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특별수사본부> 시리즈에서 오제도를 연기한 배우는 최무룡(<기생 김소산>), 이순재(<김수임의 일생>), 박근형(<국회 푸락치>) 등 당대의 미남 배우였다.⁵²⁾ 이 중 최무룡의 경우 ‘소시민형의 남우’라는 한 매체의 평처럼 ‘선량한 소시민형의 마스크’를 가진, ‘건설하면서도 의지가 굳은 역할’에 어울리는 배우였다. 당시 잡지는 최무룡에 대해 ‘일류의 청년 신사형이나 영웅적인 군인 역할보다는 누더기 ‘잠바’나 낡은 ‘와이사쓰’의 주인공 역할이 더욱 어울린다고 적고 있다.⁵³⁾ 이 같은 최무룡의 이미지는 권위를 가진 검사이지만 본부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면서 소박하게 생활하는 극 중 오제도의 이미지와 잘 어우러질 수 있었다. 실제로 오제도가 수기를 통해 강조한 자신의 이미지는 젊음과 강직함, 그리고 청렴함이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사상검사로써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테러쯤은 각오해야 했다”, “검사가 되어 출근해보니 청 내에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⁵⁴⁾고 서술하고 있고, 영화 또한 오제도가 구축하고자 했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했다.

오제도는 60년대 이후 발표한 수기에서 자신이 간첩들을 소탕하던 해방 직후, 곧 20대 후반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반복적으로 삽입했으며,

<특별수사본부> 시리즈에 출연한 세 배우는 모두 오제도의 트레이드마크인 콧수염을 붙이고 강직하면서도 인간적인 영웅을 연기했다. 이 중 <김수임의 일생>에서 오제도를 연기한 이순재는 존경하는 대선배 최무룡이 연기했던 오제도로 분한다는 것에 감격했으며, 결과적으로 연기한 배우는 달랐지만 이들이 구축한 오제도의 형상은 동일했다.⁵⁵⁾ 검사 오제도는, 시리즈 안에서 각자 구분되는 개성을 가지고 등장했던 여간첩, 그리고 이들의 남로당 연인들에 비해 친편일률적으로 묘사됐다.



< 사진 3 > 오제도를 연기한 스타들

<기생 김소산>의 최무룡, <김수임의 일생>의 이순재, <국회 푸락치>의 박근형

오제도의 반대편에 배치된 남로당 간첩 혹은 이들에게 포섭된 위정자를 연기한 배우는 문오장(<기생 김소산>, <김수임의 일생>, <국회 푸락치>), 신일룡(<김수임의 일생>), 정옥(<국회 푸락치>) 등이었다. 이 중 70년대 미남스타 신일룡을 제외하면, 개성있는 악역을 주로 연기했던 문오장이나 아직 스크린에서의 존재감이 미미했던 정옥은 간사하거나 물질에 연연하는 유약한 인물로 그려지면서 극 중 오제도를 부각시켰다.

52) 이 중 최무룡은 <여대생 이난희 사건>에 김 반장으로, 박근형은 <외팔이 김중원>에 버림받은 당원 김중원으로 출연함으로써 모두 두 번씩 주연을 맡았다.

53) 우경식, 『우리 배우의 연기 촌평』, 『영화세계』, 1963.4, 51면.

54) 오제도, 『도큐멘터리 현대사 2, 남로당국회 푸락치 사건』, 『세대』 1976.9, 204~205면.

55) 주성철에 따르면 최무룡을 가장 존경하는 선배 배우로 꼽았던 이순재에게, 최무룡이 연기한 오제도 검사를 연기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으며 이 시리즈에 대한 애착도 남달랐다.

(주성철, 『배용배용 B무비-특별수사본부 김수임의 일생』, 2014.5.27.

http://www.kmdb.or.kr/column/bbiYong_view.asp?choice_seqno=29, 검색일 2017.3.24)

영화는 오제도를 청렴한 영웅으로 배치하는 데 주력했다. 오제도가 활동하는 공간은 소박한 집무실로, 시리즈가 이어지며 감독이 바뀌어도 오제도가 팀원들과 소박하게 한 끼를 때우는 장면은 반복해서 등장했다. 이는 술과 난교가 난무하는 국일관(<기생 김소산>), 호화로운 파티가 벌어지는 베어드의 집(<김수임의 일생>), 남로당에게 포섭된 국회의원들이 단합하는 요정(<국회 푸락치>) 등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영화 속에는 오제도가 타락한 위정자들을 비아냥대는 대사가 삽입됐다.⁵⁶⁾

감독들은 그를 인간적인 영웅으로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 편의 영화는 모두 오제도의 ‘고뇌하는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데 집중한다. 그는 사랑 때문에 남로당 간첩으로 전락한 여간첩(김소산, 김수임)을 동정하며, 오랜 친구 김옥주와 선배 검사의 변절로 인해 괴로워한다. 오제도가 전후 기고를 통해 전향자를 세분화하여 사상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영화 속 오제도는 전향자에 대해 포용적이고 약자(여자)에게는 관대하며 간첩의 사연을 동정하는 관용적인 인간으로 묘사됐다.⁵⁷⁾ 극 중 오제도는 사형 구형을 받은 김소산에게 마지막 식사로 자장면을 시켜준 후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화장할 시간을 달라는 김수임의 요구를 들어주며, 잘못된 선택을 한 오랜 친구를 보며 괴로워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동료의 숭고한 희생에 오열하기도 한다. 영화는 모두 간첩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처형당하거나 끌려가는 간첩들과 함께 코트를 입고 쓸쓸하게 걸어가는 오제도의 모습을 비춘다(<기생 김소산>,

56) 오검사 이몽든 김소산인 국일관에 못나갑니다. 나가면 구속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릴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전 못합니다. / 일이 산때미같이 밀려있는데 국회의원이 겨우 하는 일이 그거야! (<기생 김소산> 심의대본, 10면)

오제도 흥! 관수장! 평화육! 명월관! 국회의원 나리들 세월 좋군. (<국회 푸락치 사건> 심의대본, 15면)

57) 오검사 이렇게 된 바에야 굳이 범법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니 순순히 자백하는 것이 오히려 입자에겐 동정을 살 겁니다. / (소리) 사실 나는 웬만한 죄를 저질렀다 해도 여자의 경우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김수임의 일생> 심의대본, 11면)

<국회 푸락치>). 자신의 손으로 간첩을 잡고도 고뇌하는 오제도의 얼굴은 시리즈의 반복되는 클리셰였다.

이처럼 70년대 미남스타들이 구축한 오제도는 젊고 강직하면서도 청렴하고 관대한, 홀로 꾀꾀하게 반공외길을 걸어가는 시대의 영웅이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액션과 추리를 담당하고, 가까이 간첩의 수난사를 들어주는 대화 파트너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제작진은 ‘철지난’ 반공영웅 오제도를 매력적으로 그리고자 했으나, 시리즈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영화가 제작되던 당시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던 오제도를 자유롭게 형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여간첩이 전면화되지 않는 <국회 푸락치>를 제외하면, 극 중 오제도는 뜻하지 않게 첩보전의 중심에 놓이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여간첩은 물론 이념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로당 공작원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평면적인 인물이었다.

3.2. 육체와 여간첩과 대비되는 탈성화(脫性化)된 남성

<특별수사본부>에서 부각된 것은 여간첩의 성적 매력과 기구한 팔자였다. 영화화된 7편의 에피소드 중 5편이 여간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당대의 육체와 여배우라 할 만한 인물들이 여간첩을 연기했다. 안인숙(<여대생 이난희 사건>), 윤소라(<배태옥 사건>, <김수임의 일생>), 우연정(<외팔이 김종원>), 최민희(<구삼육 사건>) 등 배우들 간의 인지도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당대의 섹스 심볼이었다. 김소산을 연기한 윤정희 또한 <기생 김소산>에서 국일관을 찾은 손님들 앞에서 홀라춤을 추고 상대역인 문오장과 베드신을 연출했다. 이외에도 안인숙, 윤소라는 속옷 차림으로 등장하거나 남성 배우들과 농도 짙은 러브신 및 자극적인 고문신을 연기했다.⁵⁸⁾ 여배우들의 몸은 요정에서 벌어지는 항

58) 전지니(2014), 앞의 논문, 175~176면.

락 장면과 함께 영화 속 주요 불거리로 배치됐다.

곧 <기생 김소산>, <배태옥 사건>, <김수임의 일생> 등의 영화에서 제작진은 특별수사본부의 활약보다 여간첩의 일대기 묘사에 비중을 두었다. 영화는 오제도의 영웅성과 여간첩의 일대기 중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들의 존재감은 검사 오제도를 압도했다. 실례로 시리즈 중 가장 스타급 여배우가 출연한 <기생 김소산>은 김소산이 간첩이 되는 계기로부터 시작해 사형선고를 받는 과정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영화가 여순사건 이전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후까지 수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동안 애초 허영기 있는 기생이었던 김소산은 의지하던 동료에게 총까지 겨누는 표독스러운 간첩으로 거듭난다. 영화는 얼굴에 찍은 점, '뷰티포인트'의 위치를 바꿔 남로당에게 신호를 보내고, 홀라춤을 추며 모스부호로 지령을 전달하는 김소산의 활약상을 묘사하는 데 치중한다. 영화 속에서 오제도보다 김소산이 부각되고 있는 데는 '한 여인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멜로드라마에 방점을 둔 감독의 의도⁵⁹⁾, 당시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최무룡과 '트로이카' 중 유일하게 남아 광범위한 팬을 확보했던 윤정희의 위상 차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⁶⁰⁾ 결과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면서 영화 속 오제도의 존재감은 휘발된다.

시리즈 중 여배우의 비중이 가장 작은 작품은 남성 배우 위주로 구성된 <국회 푸락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도 당시 육체파 배우로 알려진 남수정⁶¹⁾이 '전 마담'으로 분하여 순차적으로 오제도와 국회의원 노일환을 유혹하고, 오제도의 유혹에는 실패하지만 곧이어 노일환과 동침하게 된다. 관련하여 영화에는 시나리오에는 없는, 서사와는 관계없는 장면이 두 차례 삽입된다. 전 마담이 오제도와 노일환을 유혹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불분명한 어느 곳에서 햇빛은 채 누군가에게 쫓기는 전 마담의 모

습이 삽입되고, 카메라는 다시 전 마담과 노일환이 동침하는 침실을 비춘다. 관객의 눈요깃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이 장면은, 육체파 여배우를 기용한 제작진의 판단하에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국회 푸락치>에는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국부에 박헌영의 지령을 숨겨온 의문의 여인 정재한의 몸을 수색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시퀀스에서 경찰에게 몸수색을 당하는 남로당 간첩 정재한 역의 배우는 뒷모습을 완전히 노출한 채로 등장한다. 발표된 시기는 다르지만 과거 <춘몽>(1965)의 감독 유현목이 영화 속 여배우의 뒷모습 노출 사건으로 인해 음란죄 혐의를 받았던 것과 달리, <국회 푸락치>는 '중학생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관능적인 여간첩이 등장하지만 '실화'를 강조한 영화 속에서, 오제도는 타락한 위정자들과 달리 간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는 김소산과 적당히 농담을 주고받지만 수사관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으며, 여간첩에게 매혹되는 대신 그를 '인간적으로' 동정하는 시혜적 입장을 취한다.⁶²⁾ 또한 그는 전 마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곧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국회의원과 대조를 이룬다. 극 중 여간첩의 수난사에 공감하는 오제도는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실증성'을 강조한 영화는 오제도의 역할을 관찰자이자 수사관으로 제한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오제도는 수기를 통해 자신의 절제력을 강조했고, 영화 역시 오제도의 금욕적인 면을 묘사하는 데 치중한다. 이에 따라 영화 속 오제도는 여간첩과 육체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반공 일념 외에는 어떤 욕구도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59) 「특별수사본부 영화화」, 『동아일보』, 1973.1.26.

60) 「새해 「스타」 판도의 인기 예진」, 『코리아시네마』 1973.1, 74~79면.

61) 주진숙 외, 『여성영화인 사전』, 소도, 2001, 226~227면.

62) 이인규는 <기생 김소산>을 '멜로적 반공영화'로 배치하며, 영화 속에서 김소산과 오제도 간 사랑 이야기가 잔존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인규, 앞의 논문, 166~167면) 그러나 실존인물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영화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남녀 간의 사랑 이라기보다 약자에게 관대한 오제도의 휴머니즘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오검사 미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김소산 영감이야말로 멋있는 양반이라 하던데요.
 오검사 실망했나?
 소산 다소간
 (오검사의 쳐다보는 얼굴)
 소산 절 소환하신건가요? 그냥 구경하기 위해 부르셨나요.
 오검사 보고 싶어서는... 안 되나?
 소산 흥! 창경원에 원숭이 같은 기분이 들어요. 허기야 술파는
 계집이지만!
 오검사 이봐! 김소산!
 (약간 놀래는 소산의 얼굴)
 오검사 넌 큰죄를 지었어! 내 눈을 똑똑히 보라구. (<기생 김소산> 심의대본, 8면)
 전 마담 저와 단 둘이 이차 어때요? 조용한 데로 안내할게요.
 (오제도와 전 마담의 비존 및 카트)
 오제도 남자 몸매가 좋아서 내 기억해두지!
 전 마담 저도 기억해 두겠어요! (<국회 푸락치> 심의대본, 10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제도의 개성은 물론 존재감도 휘발된다. 특히 여간첩이 전경화되는 <기생 김소산>과 <김수임의 일생>에서 절제력 있고 청빈한 오제도는 사건의 핵심이 되는 간첩의 일상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 채 상황을 관조하고 이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소환하는 데 그친다. 영화 홍보자료부터 오제도가 아닌 여간첩에 초점을 맞춘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특히 <김수임의 일생>의 경우 당시 신성일의 아성을 뒤흔들 차세대 미남 스타로 꼽혔던 배우 신일룡이 이강국을 연기하며 그들만의 애뜻한 서사를 만들어갈 때, 영화 속 강직한 오제도의 존재감은 미미해진다. 극 중 액션과 추리를 담당하며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는 검사

오제도는 지극히 ‘남성적’일 수 있는 영웅이지만, 반공이라는 절대적 신념에만 몰두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자처한다는 점에서 탈성화(脫性化)된, 종교인에 가까운 형상으로 그려진다. 영화는 젊고 청렴하면서도 인간적이고 금욕적인 영웅으로 오제도를 형상화하고자 했으며, 영화의 제작 기반을 마련한 ‘살아있는’ 증인을 극화, 미화(美化)하는 과정에서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했다.



< 사진 4 > 김소산의 간첩 이력에 초점을 맞춘 <기생 김소산>의 보도 자료

배우 최무룡은 <특별수사본부> 시리즈 중 <기생 김소산>과 <여대생 이난희 사건> 등 두 번 등장했다. 이 중 최무룡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오제도가 아닌 허구의 인물 김 반장을 연기한 <여대생 이난희 사건>이었다. 여기서 그는 역시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오제도를 상징하는 콧수염을 떼버리면서 집무실을 벗어나 여간첩과 위험한 사랑에 빠지고 남로당을 직접 소탕하는 보다 능동적인 ‘남성 영웅’으로 거듭난다. 최무룡 역시 실존 인물의 강박에서 벗어남으

로써 영화 속 그의 존재감도 분명해질 수 있었다.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는 냉전기 간첩과 이를 소탕하는 수사관의 활약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60년대 중반 이미 한국에서 열풍을 일으킨 007 시리즈와 닮아 있다.⁶³⁾ 실례로 영화 속 김소산의 ‘뷰티포인트’ 같은 설정은 60년대 인기를 끌었던 스파이 영화를 참고한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얼굴의 점을 옮겨 찍거나 모스 부호로 지령을 전달한다는 설정이 007 시리즈의 문법에 익숙한 관객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어려웠고, 반공 일념에 가득 찬 투사 오제도는 외화 속 남성성으로 흘러넘치는 첩보원과는 비할 수 없는 매력 없는 주인공이었다. 이 중 여성 관객을 겨냥한 멜로드라마에 방점을 둔 <기생 김소산>, <여대생 이난희 사건>은 흥행했지만⁶⁴⁾, 그럼에도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관객수는 반토막 나게 된다.⁶⁵⁾ 관객이 좋아할 만한 액션과 멜로로 버무렸다 해도, 비슷한 형식의 간첩 이야기의 반복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 수용자 중 상대적으로 평가 기준이 높아진 관객의 눈높이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3.3. 젊은 몸과 구시대적 정신을 가진 ‘영감’

젊은 날의 자신이 대중문화 속 아이콘으로 등장할 당시 오제도는 이미 50대 중반이었으며, 그는 70년대 발표한 수기와 기고에도 과거 자신의 사정을 관습적으로 삽입했다. 이처럼 오제도는 ‘28세’의 어린 나이에 검사가 된 후 대공수사를 지휘하며 제1공화국 통치전략의 기틀을 만들었던 젊은

63) 60년대 중반 007 시리즈의 인기로 따라 ‘007스타일’에 속하는 ‘077 시리즈’, ‘관토마’ 시리즈 등 일련의 첩보영화들이 연이어 개봉됐으며, <요절복통 007>(1966) 같은 코미디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다.

64) 『기생 김소산』과 관련해서는 “실화에 입각한 기록있는 스토리”의 전개가 흥미있고 설 감독의 짜임새 있는 연출솜씨가 돋보인다.”는 평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수사본부(방화)』, 『코리아시네마』, 1973.2, 131면)

65) 1974년 당시 국산영화의 전체 평균 관객 동원수는 2만 5천 3백 81명이었다. (74년 한국영화 결산과 과제-한국영화 제작은 풍성, 흥행은 저조, 『영화』, 1974.12, 19~20면)

날을 소환, 확산하고자 했다.

흥미로운 점은 오제도가 주축이 되는 영화 <국회 푸락치>에서 그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 곧 미군 철퇴를 외치는 국회의원 및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청년들이 모두 ‘소아적’, ‘유아적’인 인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이 중 인기에 연연하는, 치기 어린 국회의원에 대한 서술은 실제 오제도의 수기에 등장하는 부분이다. 오제도는 반민특위에 적극 참여했던 국회의원 노일환에 대해 “기타의 사람들로부터 추켜세우는 바람에 일종의 영웅심이 그를 지배하여 이와 같은 반역적 행위를 감행하게 되었다. (...) 이것을 예증하는 하나로서 법무장관을 지낸 김준연 씨는 노를 보고 너무 그렇게 덤비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고, 한참 노(盧)의 서술이 퍼렸을 적에 일침(一針)을 놓은 일이 있다.”⁶⁶⁾고 서술한다. 또한 노일환과 함께 평화통일과 미군철퇴를 역설한 이문원에 대해서도 ‘과대망상증 환자’로 묘사하며 “이문원의 너무나 어린애 작난 같은 수작을 가엽게 생각했다.”고 회고한다. 오제도의 수기에서 국회의원들은 몰욕과 인기에 연연해 반역행위를 일삼게 되고⁶⁷⁾, 이들의 유아스러움은 오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된다.

이에 따라 영화 속에서는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원로 백관수가 노일환의 ‘젊은 혈기’를 꾸짖는 장면이 삽입되고, 감옥에 갇혀서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문원이 오제도를 꼬드기다 무안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오제도의 회고를 반영해 극본을 쓴 오제호 역시 국회의원들을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하는’, ‘어린애 장난’이나 별이는 치기 어린 존재로 규정한다. 관련하여 오제도 스스로 자신의 옛 친구라고 표현한⁶⁸⁾, 국회의원 김옥주에 대한 극 중 설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김옥주와 오제도가

66) 오제도(1969), 앞의 글, 123면.

67) 그는 위의 글에서 “노일환이 영웅심리의 제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문원은 매수정책의 희생자다.”라고 적는다. (위의 글, 124~127면)

68) 청춘시절을 함께 보낸 김옥주와의 인연은 50년대 발표한 국회프락치 사건 회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1970년 발간한 글에 삽입되었다. (오제도(1970), 앞의 글, 223면)

족의 친분관계를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국회 푸락치>에는 김옥주가 아이처럼 ‘눈깔사탕’을 좋아한다는 언급이 두 차례 등장한다. 오제도는 김옥주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치기를 우려하고, 원로들을 대신해 이들의 머브장머리를 고치는 일을 맡는다.

어머니 자 된장찌개 끓기전에 이거나 먹지
김옥주 아이구 눈깔사탕!
어머니 한 나라 국회의원이 되도 아직껏 사탕을 좋아하는군
김옥주 그럼요 입이야 어디 변합니까?

백관수 자네 춘부장하고 나하곤 죽마고우니깐 친자식 같아서 하는 말일세... 앞으로도 그따위로 처신하면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걷어치우고 당장 시골로 데려가라고 이를테니 그리 알게.

노일환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백관수 아니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는군!
김준원 아무리 젊은 혈기라지만 좀 지나쳐.
백관수 머브장머리를 고쳐놔야 해요. (<국회 푸락치> 심의대본, 7면)

여간첩의 역할이 미미한, 주목할 만한 여성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국회 푸락치>에서 가장 비중있게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오제도의 어머니다. 오제도는 비슷한 시기 발표한 수기에서 “내 조국, 내 강토를 쪼먹는 빨갱이들을 잡겠다고 내 젊은 날의 모든 정열을 불살라 일념했을 때, 나의 뒤에서 말없이 나를 지키고 계시던 어머니의 피나는 괴로움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다.”⁶⁹⁾라고 회고한 바 있다. 극 중 오제도의 어머니는

사상검사로써의 삶을 택한 아들을 묵묵히 지원하는 현모양처로 그려지는데, 동시에 국회의원 김옥주의 유아스러움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입부 김옥주는 오제도의 어머니에게 어리광을 피우며, 오제도에 의해 검거된 이후 어머니가 보낸 눈깔사탕을 보며 오열하고 진정한 참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⁷⁰⁾

오제도의 회고를 거의 정확히 따라가는 <국회 푸락치>에서, 추가적으로 삽입된 부분은 여자를 동원한 남로당의 계략 및 청년들의 집단 시위 장면이다. 청년은 정치인과 함께 치기어린 집단으로 폄하되는 것이다. 청년 집단에 대한 묘사는 오제도의 수기 및 오재호의 시나리오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으며, 연출 과정에서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푸락치>에는 남로당에 포섭된 국회의원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이는, 외군 첩퇴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앞서 김옥주가 성인이 되어도 눈깔사탕에 열광하는 장면 및 인기에 연연하는 정치인들의 객기를 꾸짖는 원로의 등장 장면에서 영화가 남로당에 포섭된 정치인들을 ‘유아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영화는, 남로당의 계략을 알면서도 돈과 인기 때문에 ‘남북평화통일안’을 상정한 정치인들의 자축 장면과 이들에게 현혹돼 외군 첩퇴 시위를 벌이는 청년들의 시위 장면을 병치한다. 이를 통해 철없는 청년들의 행동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탈선적이며, 반민족적인 것인지를 역설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유신체제가 반독재 투쟁을 벌인 주도 세력은 학생 집단이었으며, 학생 시위는 3선 개헌 반대와 교련반대 투쟁, 그리고 부마항쟁까지 이어진다. <국회푸락치>가 제작되기 직전에는 전국 각 대학의 운동세력이 일제히 봉기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투쟁이 발발해 학생운동의 분수령을 마련했다.⁷¹⁾ 이처럼 1974년에 제작, 개봉된 <국

69) 오제도, 나의 어머니, 『새가정』 1972.8, 13면.

70) 그러나 그레고리 헨더슨의 공판 기록에 따르면, 김옥주는 피고인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정에서 자신과의 우정을 언급한 오제도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기, 앞의 책, 207면)

회푸락치>는 유신헌법의 공포와 격렬한 반대 움직임의 한 가운데 있었다. 또한 영화의 감독은 한국의 첫 번째 반공영화라 일컬어지는 <성벽을 뚫고>⁷²⁾ 조연출로 활약하기도 했던 권영순이 맡았다.

여기서 청년의 시위 장면이 원작자, 연출자 혹은 제작자 중 누구의 의지에 의해 반영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만, 영화 속 청년의 시위는 다분히 유신 전후의 상황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반공을 표방한 영화는 해방기를 소환하는 동시에 당면한 정치적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를 병치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 과정에서 청년의 시위는 남로당에 동조한 정치인으로부터 조종을 받은, 역시 ‘치기어린’ 행위로 규정되는데 이는 영화가 제작된 시점에서 정부의 통치전략에 동조해 청년 시위대를 반국가단체로 낙인찍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국회 푸락치>는 액션과 섹스, 그리고 멜로드라마가 적당히 어우러진 ‘비화(秘話)’를 보듯이 관람할 수 있는 다른 작품과 달리, 시리즈 중 가장 불편한 작품일 수 있었다. 이인규는 오제도가 등장하는 같은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푸락치>를 반공주의에 강박된 교과서적·도구적 특징을 지닌, 기존 상업영화 장르 분류 체계에 들어올 수 없는 ‘독자적 반공영화’에 포함시킨 바 있다.⁷³⁾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회 푸락치>는 여간첩의 활약상을 축소하고 ‘재미없는’ 오제도에게 초점을 맞춘 영화였다. 이후 개봉된 <외팔이 김종원>, <구삼육사건>보다도 적은 관객수는 이 같은 경직성에 따른 결과였다.

4. 나가며-스크린 속 오제도의 퇴장과 반공표상으로서의 불멸성

알려진 것처럼 오제도는 1977년 국회의원에 선출됐고, 오제도를 다룬 라디오드라마와 만화⁷⁴⁾는 계속 재발행됐다. 그는 두 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의정활동을 마치고 변호사로 돌아간 이후에도 각종 일간지와 월간지에 기고를 계속하면서, 여전히 화려했던 과거를 소환하거나 국민의 안보의식을 염려하는 일을 지속했다. 오제도는 본업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았다. 실례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는 김대중에 대한 색깔론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당시 80세의 오제도를 영입하는 전략을 고민하기도 했다.⁷⁵⁾ 그는 이승만 정권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구시대적’인 인물로 간주되었으나 ‘반공표상’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정치, 언론, 대중문화 등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소환될 수 있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오제도의 전적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 실례로 ‘국회 프락치 사건’은 반민특위를 무산시키기 위해 조작된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었다. 당시 변호사였던 박원순은 수기와 영화에도 등장하는, 정 여인(정재한)의 몸수색과 지령의 발견 과정이 “너무 코믹하고 드라마틱해서 믿기 어렵다.”고 적은 바 있다.⁷⁶⁾ 실상 “중대하였고 조직적인” 이 사건이 밝혀지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박현영이 남로당에게 전달하는 기밀문서를 몸속에 숨겨두었던 정재한은

71) 서중석, 『해방 후 학생운동의 민족사적 위치: 3선 개헌 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 투쟁』, 『역사비평』 제3권, 역사비평사, 1988, 81~84면.

72) 김종원, 앞의 글.

73) 이인규, 앞의 논문, 166~169면.

74) 라디오드라마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는 70년대를 관통하는 대표적 반공실록이 됐고, 남성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만화 『기생간첩 김소산』이 재발행됐으며, 역시 오제도의 대공수사 ‘실화’를 다룬 『19호 검사실』 같은 만화가 발행됐다.

75) 『국민회의 오제도 씨 영입 추진』, 『조선일보』, 1997.9.7.

76) 박원순, 『우리 역사 바로 알자 국회 프락치 사건 사실인가』, 『역사비평』 제8권, 역사비평사, 1989, 229면.

정확한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더러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지도 않았으며, 공판 중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했다.⁷⁷⁾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오제도는 “중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당시에 공산당이 아니면 주장하지 않던 내용(미군철퇴, 남북협상, 평화통일·괄호 내용은 필자 삽입)이라는 데 있다.”고 강변했다.⁷⁸⁾ 동시에 국회 프락치 사건은 ‘순수한 대공사건’이라며 자신이 사찰과장과 함께 암호를 풀었으므로 따로 증인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⁷⁹⁾ 관련하여 국회프락치 사건의 모든 공판 진행 과정을 기록했던 그레고리 헨더슨은, 이 사건을 ‘정치사건’으로 간주했다. 그는 72년 오제도와 만나 정재한의 신원 및 작가 오재호 등에 대해 캐물었으며, 오제도는 그 자리에서 정재한의 결말과 관련해 거짓 답변을 하기도 했다.⁸⁰⁾

2005년 KBS 다큐멘터리 <인물현대사>는 ‘한국판 마타하리, 신화인가 진실인가’라는 제목으로 김수임 사건을 재구성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특별수사본부> 시리즈의 시나리오를 쓴 오제호가 직접 등장해 중앙정보부의 검열하에 많은 부분이 조작됐다고, “사실 첫 출발은 제가 조작한 게 분명합니다. 김수임을 간첩으로 만들어야 하니까.”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쓰며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수임이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⁸¹⁾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제호의 창작 작업의 근간이 된 것은 오제도의 수기와 인터뷰였다. 오제도는 ‘미모의 여간첩’이자 ‘애정유죄’의 대상이 된 김수임을 비롯해 그가 맡은 사건들을 신화화하면서 그 자신도

77) 김대현,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과 법조 프락치 사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67면.

78)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나남, 2008, 469~470면.

79) 정부 수립 50돌 10대 의혹사건의 진실은 어디에 2 반민특위, 국회 프락치, 『한겨레』, 1998.8.3.

80) 김정기, 앞의 책, 55면, 229~245면.

81) 한국판 마타하리, 신화인가 진실인가 - 김수임, 『인물현대사』, KBS, 2005년 2월 11일 방영.

신화가 됐다.

본고는 70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오제도와 영화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관련지어 논의했다. 소략하게 논의했지만 월남 이후 오제도의 궤적을 훑어가는 작업은 한국 현대사를 재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제도의 수기를 토대로 한 영화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는 70년대 정치논리와 대중문화가 공명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영화’

설태호 연출, 신봉승, 유일수 각본, 한진홍업 제작, 영화 <특별수사본부 기생 김소산>, 1973.

이원세 연출, 오재호 각본, 한진홍업 제작, 영화 <특별수사본부 김수임의 일생>, 1974.

권영순 연출, 권영순, 안준오 각본, 한진홍업 제작, 영화 <국회 프락치>, 1974.

‘대본’

하유상 각본, <나는 속았다> 오리지널 시나리오, 1964.

_____, <나는 속았다> 심의대본, 1964.

신봉승, 유일수 각본, <특별수사본부 기생 김소산> 심의대본, 1973.

오재호 각본, <특별수사본부 김수임의 일생> 심의대본, 1974.

권영순, 안준오 각본, <국회 프락치> 심의대본, 1974.

‘단행본’

오재호, 『(특별수사본부) 3 : 국회 프락치 사건』, 창원사, 1972.

오재호, 『(특별수사본부) 5 : 기생간첩 김소산』, 창원사, 1972.

오재호, 『(특별수사본부) 7 : 여간첩 김수임, 교육자협회 사건』, 창원사, 1972.

‘오제도의 글’

- 오제도, 『국가보안법실무제요』, 서울지방검찰청, 1949.
- ____, 「남포 국회 프락치 사건 논고 요지」 (1)~(2), 『부인신문』, 1950.2.14~15.
- ____, 「민족양심의 반영」, 『적화삼삭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
- ____, 『붉은 군상』, 남광문화사, 1951.
- ____,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서울문예서림, 1951.
- ____, 『평화의 적은 누구냐』, 남광문화사, 1952.
- ____, 『사상검사의 수기』, 창신문화사, 1957.
- ____, 「공산간첩을 섬멸하자-인공위성보다 무서운 인식 부족」, 『국회보』, 국회 사무처, 1957.11.
- ____, 「국회 프락치사건의 편모」, 『추격자의 증언』, 1969.
- ____, 「나의 어머니」, 『새가정』 1972.8,
- ____, 「그때 그 일들」, 『동아일보』 135~156회, 1976.6.12~1976.7.7.
- ____, 「도큐멘터리 현대사 2, 남로당국회 프락치 사건」, 『세대』, 1976.9.
- ____, 「전환기의 내막-국회 프락치 사건」, 『조선일보』, 1~7회, 1981.6.9~1981.6.16.
- ____, 「나의 인생경력 : 아직도 뛰고 있는 오제도 검사」, 『한국논단』, 22권 1호, 1999.

‘잡지 및 편람’

- 『희망 별책 해방 10년』, 희망사, 1955.8
- 이병도 외 편 『해방 20년사: 신문기록에 의한 대사건의 집대성!』, 희망출판사, 1965.
- 『한국영화자료편람』, 영화진흥공사, 1977.
- 『한국영화, 외국영화 검열현황편람 : 1971~1981년』, 영화진흥공사, 1982.
- 『국제영화』, 『근대영화』, 『영화』, 『영화예술』, 『영화잡지』, 『코리아시네마』
- 김대성, 「반공포로 가족사 일기-간첩수사극 애청 추억」, 『Economytalk』, 2015.1.9.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27474> 검색일 2017.3.23.
- 모운숙, 「나는 인간 김수임을 안다」, 『연합신문』, 1950.6.17.
- 백일현, 「외국어 뛰어난 ‘이화’ 출신 ... 사회주의 소신, 간첩활동은 ‘글썸」, 『중앙일보』 2015.4.11. <http://news.joins.com/article/17564818>, 검색일 2017.3.27.
- 우경식, 「우리 배우의 연기 촌평」, 『영화세계』, 1963.4.
- 주성철, 「빼용빼용 B무비-특별수사본부 김수임의 일생」, 2014.5.27.
http://www.kmdb.or.kr/column/bbiYong_view.asp?choice_seqno=29, 검색일 2017.3.24.

- 전갑생, 「국회 프락치 사건, ‘흥미거리’ 혹은 ‘조작의 원조」, 『민족 21』, 2012.7.
- 한갑진, 「영화법과 영화제도」, 『영화TV예술』, 1968.7.
- 한승동, 「‘눈물 젖은 두만강’에서 부르는 ‘님’이 박헌영 선생」, 『한겨레』, 2015.12.9.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721163.html#csidx2bf9b0c8c0df6f98ee03a79d2d13efb>, 검색일 2017.3.29.
-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영화시책」, 『근대영화』, 1972.1.
- 「각광받는 인기스타들」, 『근대영화』, 1972.3.
- 「『문화유신』을 다짐」, 『코리아시네마』, 1972.12.
- 「새해 『스타』판도의 인기 예진」, 『코리아시네마』, 1973.1.
- 「『특별수사본부』(방화)」, 『코리아시네마』, 1973.2.
- 「74년의 한국영화 결산과 과제-문예물 제작으로 탈분황 조짐」, 『영화』, 1974.2.

동영상

- 양승동 연출, 「한국판 마타하리, 신화인가 진실인가 - 김수임」, 『인물현대사』, KBS, 2005년 2월 11일 방영.

2. 단행본

- 국민방첩연구소, 『지공교육독본-이것이 북한의 전부다』, 흑백문화사, 1972.
- 김정기, 『국회 프락치 사건의 재발견-그레고리 헨더슨의 한국정치담론』 1~2권, 한울아카데미, 2008.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나남, 2008.
- 정영권, 『적대와 동원의 문화정치: 한국 반공영화의 제도화 1949~1968』, 소명출판, 2015.
- 주진숙 외, 『여성영화인 사전』, 소도, 2001.
- 한갑진, 『우리 어머니처럼 살면 무엇이 두려우랴』, 동아일보사, 1998.

3. 논문

- 강성현, 「1945~50년 ‘檢察司法’의 재건과 ‘사상검찰’의 ‘反共司法」, 『기억과 전망』 제25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1.

- 김대현,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과 법조 프락치 사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김종원, 「반공영화 30년의 현주소」, 『북한』 제48호, 북한연구소, 1975.
- 박원순, 「우리 역사 바로 알자 국회 프락치 사건 사실인가」, 『역사비평』 제8권, 역사비평사, 1989.
- 서중석, 「해방 후 학생운동의 민족사적 위치: 3선 개헌 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 투쟁」, 『역사비평』 제3권, 역사비평사, 1988.
- 이인규, 「1970년대 반공영화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하나, 「1970년대 간첩/첩보 서사와 과잉 냉전의 감수성」, 『역사비평』 제112권, 역사문제연구소, 2015.
- 이행선, 「한국전쟁, 전쟁 수기와 전시의 정치」, 『상허학보』 제46집, 상허학회, 2016.
- 전지니, 「반공과 검열, 그리고 불온한 육체의 기묘한 동거」, 『여성문학연구』 제33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 _____,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청년 표상 연구」, 『어문론총』 제6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Abstract

The 'Myth' of Oh Jedo and Anticommunist Cinema during the Yushin Period

- Focusing on <Teugbyeolsusabonbu> Series -

Jun Jeenee

This paper aims to discuss a method of being dramatized an prosecutor Oh Jedo, who had arranged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ook custody of converts after this, focusing on a movie titled <Teugbyeolsusabonbu>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series that was planned and produced simultaneously with being revised the film law following Yushin Regime. Oh Jedo released memoirs several times after the Korean War, thereby having repeatedly looked back on 'a story of hunting out spies.' His memoirs were spread omni-directionally such as radio drama, a book form, movie and animation amid the diffusion of the anti-communist and counter-espionage stories in the 1970s. In the process, Oh Jedo is reborn as an anti-communist hero in the middle of popular culture.

The movie <Teugbyeolsusabonbu> series was the output of having been made with being interconnected the situations of the ideological prosecutor, who had proceeded with securing the position through the anti-communist writing, and of a production company, which had aimed to make an interesting anti-communist work in line with the revised film law. Oh Jedo, who was established by handsome stars in the 1970s amid the series, was a hero in the times who proceeds with stubbornly walking a single path alone with being young, upright, righteous and generous. These characters ever became a conversation partner of being in charge of action and inference in some cases and of willingly listening

to a spy's history of ordeals. Also, amidst the movie that emphasized 'true story,' Oh Jedo is on his guard against a female spy who is sensual, unlike corrupt politicians, and takes the dispensation-based position of 'humanly' sympathizing with the person instead of being fascinated by the spy. Along with this, in the movie *Gughoepeulagchi* (Spie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which Oh Jedo becomes the main spindle, all the young men, who criticize lawmakers and government policy, with crying for the U.S. military pullout, are depicted as a 'childlike' and 'infant-like' character. On the other hand, Oh Jedo is placed as an abettor who corrects these people on behalf of elders. By the way, even if having been mixed with action and romance, it could not continue to satisfy the eye level of audiences whose evaluation base got higher relatively among consumers of popular culture in the process of being repeated a spy story in a similar form.

The movie <*Teugbyeolsusabonbu*> series based on Oh Jedo's memoirs requires attention in a regard of being the output that was made with being resonated the political logic and the popular culture in the 1970s.

Key words: Anticomunist Cinema, Female Spy, Film Law, Movie Series <*Teugbyeolsusabonbu*>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Prosecutor Oh Jedo, Sexuality, the Kim Suim Affair, the Spies in the National Assembly Affair, Yushin Regime

접수일: 2017년 4월 30일

심사기간: 2017년 5월 16일~5월 28일

게재결정: 2017년 6월 10일